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회 방송



### 1998년 첫 방송된 SBS대표 교양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 우리 주변의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사연을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1998년 5월 6일(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시범 방송된 뒤, 5월 21일(목)부터 정규 편성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2014년 7월 24일(목) 800회를 맞았다. 첫 회 당시 대한민국 방송 최초로 6mm 카메라 제작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출연자와 사연을 더욱 밀착 취재하여 눈길을 끌었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16년간 수많은 화제와 감동을 전하는 사연들로 시청자와 함께 해왔다.

###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호응, 평균 시청률 12%대 유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800회 방송을 맞이하기까지 무려 2,507명이 출연하였고, 드라마 못지않게 극적인 실화와 현실을 개척하며 희망을 키워나가는 이들의 삶을 소개해왔다. 건공과 인간의 탐욕을 다룬 '누렁이 구조작전'(1999년), 부산광역시 원숭이 탈출 사건을 방송한 '부산원숭이'(1999년), 방송 사연이 영화화된 '맨발의 기봉이'(2002년), 성형중독의 안타까운 사연과 희망을 이야기한 '선풍기 아주머니'(2006년) 등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매회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로 큰 공감을 얻으며 평균 12%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2000년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과 '2010년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은상'을 수상하는 등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 MC 임성훈, 박소현의 변함없는 16년

지난 7월 22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녹화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800회 특집 기자간담회'에서는 MC 임성훈, 박소현, 변기수, 이윤아 아나운서가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회부터 지금까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MC

자리를 지켜온 임성훈, 박소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임성훈은 "MC가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장수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제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16년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800회를 맞이한 소감을 언급했다. 박소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벌써 16년이 되었다니 무척 감격스럽다. 특히 임성훈 씨와 함께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라디오 DJ와 연기도 하고 있지만, 매회 영화와 드라마보다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제작본부 신용환 교양국장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함께 해온 임성훈, 박소현씨는 단순한 진행자 이상으로, 이미 프로그램의 아이콘이자 브랜드가 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MC분들 덕분에 800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MC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 800회 특집, 초특급 스케일의 출연자 대거 등장!

7월 24일(목) 방송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회는 그 동안 출연했던 주인공들의 기상천외한 도전 현장을 담았다. 자체 제작한 2인용 잠수함으로 울진 앞바다 잠수에 도전한 권영진 씨, 길이 50m 초대형 연날리기에 도전한 강연중 할아버지, 축구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용 네 마리 그리기에 도전한 중국집 주방장 이순표 씨 등 육·해·공을 아우르며 펼쳐진 초대형 도전 과정을 함께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외에 지난 16년간 취재했던 미공개 영상들을 전격 공개하고, 23년간 강원도 산속에서 살아온 자연인 김씨돌 씨, 9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해온 65세의 아들, 전신마비인 아내를 20년간 돌봐온 김동덕 씨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의 이야기로 진한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었던 출연자들의 근황을 방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끝없는 사랑〉 기자간담회 개최

주말특별기획 〈끝없는 사랑〉(극본: 나연숙 연출: 이현직)이 격동의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끝없는 사랑〉 제작진은 7월 31일(목) 일산제작센터 드라마연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출을 맡은 드라마본부 드라마1EP소속 이현직 부장과 출연배우 황정음, 류수영, 정경호, 심혜진, 서효림, 정웅인이 참석하였다. 이현직 부장은 “〈끝없는 사랑〉이 극의 4분의 1 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한층 버라이어티한 사건들과 각 인물들의 인생역전이 펼쳐질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배우들의 열연에 찬사를 보내며, 저희 드라마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다.”라며 〈끝없는 사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였다. 배우들은 향후 극의 전개 방향과 촬영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시종 즐거운 분위기로 간담회를 이끌었다.



### 배우 인터뷰



#### 황정음

서인애는 이전에 연기해보지 않은 캐릭터라서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지만, 배우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즐겁다.



#### 류수영

〈끝없는 사랑〉이 12회 전까지는 가족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각 인물들이 성인으로서 겪는 새로운 갈등관계가 조성되어 더욱 재미있어질 것이다.



#### 정경호

저는 유난히 격투신이 많아 평소에도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도시의 법칙〉으로도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데, 항상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 심혜진

관록 있는 나연숙 작가님이 쓰신 시대극이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정치용어가 많이 나와 대사를 외우기 버거운 편이다. 오랜 기간 연기를 해왔지만, 아직도 배우 점이 많다고 느낀다.



#### 정웅인

모든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연기하는 박영태는 저의 전작과 차별화된 인상적인 악역으로 남을 것 같다.



#### 서효림

이 작품을 통해 동갑인 황정음씨와 많이 친해져서 의지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팬이었던 차인표씨와 부녀 관계로 나와 영광이면서도 묘한 기분이다.

### SBS 첫 주말 미니시리즈 〈모던 파머〉 이흥기, 박민우, 이하니 출연 확정

SBS가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위하여 야심차게 기획한 첫 주말 미니시리즈 〈모던 파머〉(가제)에 FT아일랜드의 이흥기, 배우 박민우, 이하니 등 젊은 스타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어 화제다. 〈모던 파머〉는 귀농을 선택한 네 청년들의 꿈과 사랑을 유쾌하게 그려나갈 휴먼 코미디 드라마로, 〈결혼의 여신〉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드라마본부 드라마4EP소속 오진석 PD와 〈롤리코스터〉, 〈푸른 거탑〉을 집필한 김기호 작가가 의기투합하였다. 〈모던 파머〉는 주말극장 〈기분 좋은 날〉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 중순 첫 방송될 예정이다.

### 〈비밀의 문〉 이제훈, 김유정 합류

SBS의 2014년 대기획이자 하반기 야심작인 〈비밀의 문〉(극본: 윤선주 연출: 김형식)이 화려한 캐스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석규, 김민중, 김창완에 이어 영화 ‘건축학 개론’, ‘파파로티’, 드라마 〈패션왕〉으로 인기를 끈 이제훈이 사도세자 이선 역에 캐스팅되었다. 또한 아역을 거쳐 팔색조 여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김유정이 사도세자를 도와 사건을 파헤칠 인물 서지담 역을 맡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모닝와이드〉 출연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닝와이드〉에 출연했다. 김 장관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된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8월 4일(월) 방송된 여름방학 특집 〈모닝와이드〉는 ‘우물 밖 청개구리들’이라는 주제로 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이룬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당구선수 차유람, 가수 보아의 어머니 성영자, 변호사 이미나, 라피스라즐리 밴드의 곽준석이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진출자 확정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진출자 26명이 확정되었다. 7월 23일(수)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종 예선에서는 1차 예선에서 뽑힌 49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집중 심사를 거친 끝에 남자 12명, 여자 14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SBS의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며 이소라, 박들선, 수현, 애프터스쿨 나나 등을 배출했다.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대회는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 〈패션왕 코리아〉 시즌2, 8월 16일(토) 첫 방송

스타와 디자이너의 특별한 패션 콜라보레이션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패션왕 코리아〉 시즌2가 8월 16일(토) 밤 12시 10분 첫 방송된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첫 녹화 현장에서는 MC 신동엽의 능숙한 진행으로 정준영, 윤진서, 클라라, 홍진경, 조세호, 광희, 선미, 블랙비지코&피오의 재치있는 입담과 함께, 국내 최고의 스타디자이너들의 화려한 의상들까지 엿볼 수 있어 연신 웃음과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 ‘주먹 쥐고’ 시리즈 제2탄 〈주먹 쥐고 주방장〉 제작

지난 설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되어 방송3사 전체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주먹 쥐고 소림사〉에 이은 김병만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요리국가로 인정받는 중국의 정통 요리에 김병만과 함께 장미여관의 육중완, 슈퍼주니어 M의 헨리, 중국 칭타오 출신의 f(x) 빅토리아, 슈퍼주니어 강인이 도전장을 던졌다. 중국의 초대형 식당 주방에서의 벌어지는 리얼한 요리 도전기 〈주먹 쥐고 주방장〉은 2014년 추석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 SBS, '2014 상반기 시청자만족도(ASI) 조사' 2년 연속 지상파 1위

편성전략본부 편성기획팀에서 실시한 '2014 상반기 시청자만족도(ASI) 조사' 결과 SBS가 7.01점을 기록하며, 6.95에 그친 KBS와 6.94를 기록한 MBC를 따돌리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시사보도, 교양 부문에서 SBS가 1위를 하였고, 특히 드라마 장르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또한 7개의 평가 차원 ASI에서는 SBS가 '객관/공정/신뢰'와 '사회적 기여도', '완성도'에서 타사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시사보도와 교양, 드라마 장르에서 모든 차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ASI 프로그램별 비교 결과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사보도 장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SBS 8뉴스>도 <KBS 9시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 비하여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교양 장르에서는 <모닝와이드>, <궁금한 이야기 Y>, <TV 동물농장>이 우세했고, 드라마 장르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가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하였다. ASI 조사는 SBS가 TV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사, 장르, 프로그램 측면에서 시청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반영하고 시청자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솔루션에 의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13~69세 시청자를 대상으로 5월 28일(수)~6월 3일(화)까지 On-line Survey로 진행되었다.



## 부서 탐방

### 진화하는 미디어, 진화하는 SBS

편성전략본부 스마트미디어국 스마트미디어기획팀

지난 7월 7일(월) SBS 기구조직개편과 함께 편성전략본부 스마트미디어국 스마트미디어기획팀이 신설되었다. 출범 한 달을 맞이한 스마트미디어기획팀에 대한 사우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김도식 팀장을 인터뷰하여 스마트미디어기획팀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 똑똑해지는 미디어, 지금도 성장 중

스마트미디어는 사실 뉴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뉴미디어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길게 보면 IOT(Internet Of Thing)라는 사물 인터넷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미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뉴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스마트미디어의 발전은 콘텐츠 공급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

스마트미디어기획팀이 하는 일을 설명 드린다면, 스마트미디어인 사물인터넷까지 가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21세기 초부터 해왔던 온라인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 SBS의 현재 온라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스마트미디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홈페이지나 앱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바일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SBS미디어홀딩스 플랫폼기획팀과 협의하여, TV뿐만 아니라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시켜온 SBS방송 콘텐츠가 과연 제 값을 받아왔는지 관련 정책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 다양한 시청패턴 고려, 새로운 콘텐츠로 수익구조 창출

현재 저희 팀이 우선순위를 두는 업무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유통 정책입니다. 이미 그룹 차원에서 우리 콘텐츠가 제 값에 팔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TV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린백(Lean back)이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소파에 기대앉아 편안하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공급이 스마트미디어로 확대되면서, 시청자들이 린포워드(Lean forward), 즉 소파에 기대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콘텐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사용 행태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SBS콘텐츠가 여기에 맞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디어 사용 습관을 가진 시청자들에게 맞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기자, PD, 각 본부 제작지원팀, 작가들까지 제작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어딘가 분출점이 터져준다면 충분히 실험적이고 가치 있는 시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는 제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함

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아이디어도 같이 고민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갈 예정입니다.

#### 스마트미디어 세상의 가장 큰 핵심은 Connected

요즘 10대~20대 시청자들은 TV를 '부모와 함께 보는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 함께 TV를 보는 것을 불편해하고, 모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들이 20~30대로 메인 시청 층이 되면서, 기존 시장 패턴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큰 특징은 connected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곧, 미디어 사용자들이 우리 콘텐츠를 본 뒤 자랑하며 알리고 싶어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만족감을 주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시청자가 연결망을 통해 콘텐츠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생산 매커니즘을 바꾼다면, 자연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SBS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광고 수익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플랫폼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connect입니다. SBS콘텐츠가 소셜의 세상에 뛰어들어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재미와 감동, 자랑하고 싶은 가치를 부여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저희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 SM팀? 스미국 스미팀? NO! 스마트국 스마트팀!

저희 부서의 약칭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는데요, 처음에는 알파벳 머리글자를 따서 SM국 SM팀이라고 하니까 특정 연예기획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상하더군요. 그렇다고 스미국 스미팀 하나까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이 연상되어서 영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뻔뻔하지만 스마트국 스마트팀이라고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 상상력과 기술,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는 소수의 인원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기술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지원하시는 분은 필히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셜에 관심이 없거나 두려움을 가진다면 곤란합니다. 저희 부서원이라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주시하면서 연결망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내 소식

### ‘도량살리기 협약식’ 개최

지난 7월 23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도량살리기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이용모 SBS사장을 비롯해 2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수생태계의 최상류인 도량을 살리는데 정부, 지방자치단체, SBS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도량살리기 운동’은 물순환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도량과 실개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하천중심의 전통적,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동부도량을 비롯해 31개 도량이 신규사업자로,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을 구기마을의 구기도량을 비롯한 13개 도량이 사후사업자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총 8억 5십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SBS는 매주 금요일 4시 30분 <물은 생명이다>를 통해 도량살리기 운동을 방영하여 도량을 비롯한 수생태환경 회복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새 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 방통심의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소녀의 이상한 탄원서>(연출: 최민철)가 방통심의위 2014년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소녀의 이상한 탄원서>는 대구 철곡 아동학대 사건의 추악한 진실과 현행 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경각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라디오기획안 공모 시상식

SBS 라디오센터는 7월 24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2층 라디오센터장실에서 라디오기획안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이 수상하였다.

#### 수상 내역

- 최우수상 - 목동 레코드's (라디오1CP소속 류철민)
- 우수상 - Are You There? (라디오2CP소속 남중권)  
허수경의 원더풀 라디오 (라디오1CP소속 이재익 차장대우)  
장미여관의 오빠라디오 (박지은 팟캐스트PD)
- 장려상 - 밤 나뉘 드실래요? (라디오기획CP소속 김영우 차장대우)  
달콤한 밤 안재현입니다 (라디오2CP소속 변정원 차장대우)  
축구도 수다다 (라디오기획CP소속 윤의준)



### 아나운서팀 박영만 부국장 정년 퇴임

지난 7월 30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박영만 부국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박영만 부국장은 1991년 3월 SBS에 입사하여 라디오 정보프로그램 진행 및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해왔다. 농구, 배구, 유도, 펜싱 등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으며 특히 농구 중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캐스터로 활약했다. 각종 빅 이벤트의 중계 및 후배 캐스터 관리를 통해 SBS 스포츠 중계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까지 6년간 아나운서팀장으로 재임하며 팀 관리 및 후배 양성에 최선을 다했다.



## 그룹 소식

### SBS Sport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년 연속 중계

SBS스포츠가 8월 16일(토요일, 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2014-2015 EPL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중계한다. 2009-2010 시즌부터 EPL 중계를 시작한 SBS스포츠는 올해로 6년째 EPL을 안방극장에 전달하게 됐다. SBS스포츠의 EPL 중계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박문성, 장지현, 김동완 위원의 다양한 색깔의 중계로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올해에는 축적된 중계 노하우에 새로운 감각을 더해 업그레이드 된 중계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 MEDIACRE8 2014년 공익광고 ON-AIR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엘리베이터편’과 ‘블랙박스편’ 공익광고 영상을 완성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 속 타인에 대한 작은 관심과 나눔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부제작사를 통해 진행했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미디어크리에이트 내부 제작팀(IMC기획2팀 제작파트)에서 제작을 주관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구현했다.



‘엘리베이터’편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주제인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에 대해 접근했다.

‘블랙박스’편은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실제 방영된 내용 중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모아 재편집해 시리즈물로 구성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SBS TV 및 라디오, 그리고 SBS CATV(SBS Plus, SBS스포츠, SBS Golf, SBS CNBC, SBS funE, SBS MTV, 니켈로디언)를 통해 방영되고 있으며,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대행매체인 지역민방과 OBS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매년 이러한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이라는 공익광고의 법적 목표에 충실하게, 주제를 선정하고 SBS 및 관계사, 대행매체뿐 아니라 뉴미디어 등에도 공익광고 집행을 계속할 예정이다.

SBS 사회공헌활동 **'올해의 작가상 2014'展 개최**



**한국 미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획전**  
**8월 5일(화)~11월 9일(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SBS문화재단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올해의 작가상 2014'전을 8월 5일(화)부터 11월 9일(일)까지 과천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2014 올해의 작가' 후보 작가로 선발된 구동희, 김신일, 노순택, 장지아의 최근 작품들을 각 작가별로 전시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작가인 '2014 올해의 작가'를 9월 중에 선정한다.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여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시상제도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존에 개최하던 '올해의 작가(Artist of the Year)'전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적 잠재성과 비전을 제시할 역량 있는 작가를 후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올해의 작가상'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작가 선정과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동시대 미술계의 필요에 응답하는 현장 중심적이며 실질적인 미술후원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올해의 작가상' 후보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작품들을 출품한다. 전시는 개성 강한 4인의 개인전이 동시에 개최되는데, 각 전시마다 후보 작가 나름의 주제의식이 선명히 드러난다.

'올해의 작가상' 후보 작가 4인에게는 각 4,000만원 상당의 'SBS문화재단 후원금'이 제공되며, 전시 기간 중 전시실 심층 탐방, 작가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수상자 1인을 '2014 올해의 작가'로 선정한다. 최종 수상자인 '2014 올해의 작가'에게는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2014년 12월 예정)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올해의 작가상'은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창작의 동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계에는 새로운 한국 현대미술의 경향 및 담론을 이끌어내고 한국미술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m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작가 및 작품 소개**

**구동희 재생길(Way of Replay)**

구동희 작가는 진부한 일상에서 출발하여 퍼즐을 맞추듯 우연적 상황을 개입시키면서 영상, 설치 등의 작업으로 작품을 풀어나간다. 이번 설치작업인 '재생길'(2014)은 작가의 서울대공원에 대한 기억과 최근 들어 발생했던 사건·사고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상을 통해 구성되었다. 놀이를 하듯 시각적 요소를 암시적으로 구현해 가는 작가의 작품에는 다층적인 의미 해석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부조리함이 묻어있다.

**김신일 이미 알고 있는(Ready-known)**

김신일 작가는 지속적인 정보 과부하 상태로 현대 사회가 취하게 된 수동성을 인지하고 세상의 '범주화'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사고하며 시각적인 창조물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Ready-known)' 관념을 해체시키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마음, 믿음, 이념'이라는 세 단어를 심장박동소리에 따라 흔들리는 거울 앞에 설치하거나 아크릴 상자에 넣어 작가의 추상적 관념을 구현하고 있다. 영상작품 '42000초 안에서의 대화'는 인간의 시각,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실체로의 접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지아 금기는 숨겨진 욕망을 자극한다(Taboos Stimulate Hidden Desire)**

장지아 작가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것을 몸을 통해 다루는 작가로 퍼포먼스, 영상, 설치, 사진을 통해 구현한다. 작가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로서의 몸을 다루기보다는 몸의 내적 깊숙한 부분, 감각체계로서의 몸을 다룬다. 이번 신작인 설치 및 퍼포먼스 작업 '아름다운 도구들 3'(2014)은 작가가 5~6년 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상반될 것 같지만 음란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두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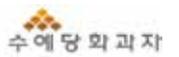
**노순택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Sneaky Snakes in Scenes of Incompetence)**

노순택 작가는 분단 현실을 주제로 한 사진 작업을 통해 분단이 우리 일상이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를 제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작동되어 왔고 그 안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시위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카메라가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 ① 구동희 '재생길'
- ② 김신일 '마음, 믿음, 이념'
- ③ 노순택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 #P-XIII050101'
- ④ 장지아 'P-tree'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고,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통상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6~9월에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라 한다.

### 온열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폭염관련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이온음료 섭취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실신	일시적 의식 소실	• 평평한 곳에 눕힘
일사병	두통,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며 체온은 크게 변동 없음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 심할 경우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서 체온을 식히도록 함

폭염 관련 질환 중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이다.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내리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체온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①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되도록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이동시킨다.
- ② 옷을 벗기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주머니를 경부,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에 대준다.
- ③ 의식이 있는 경우 차가운 물 또는 염분도 적절히 보충할 수 있는 스포츠음료를 먹인다. 응답이 없는 등 의식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잘못된 면 수분이 기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므로 수분섭취는 금물이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

1.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신다.
2.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한다. 험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한다.
3.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한다.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 말 것
2.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은 피할 것
3.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말 것
4.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할 것
5. 가스레인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 한다.
6.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 것.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사우 기고  
관람 후기

## “에드바르트 뭉크 -영혼의 시” 전시회

기간 : 7월 3일(목)~10월 12일(일)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뭉크의 ‘절규’ 속에 숨은 비밀

뭉크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절규 The Scream’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도 종종 패러디 되곤 합니다. 방송에서도, 만화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소위 ‘짤방’에서도 뭉크의 ‘절규’ 이미지는 가장 애용되는 패러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뭉크 이전 시대까지는 신과 도덕, 계급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왕이나 귀족, 굉장한 부자 아니면 그림 속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 워낙 비싼 물감의 영향도 있지만 ‘왜’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지도 제약이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들이 일반인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농민을 그리기도 하고 거리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신과 도덕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뭉크는 더 나아가 인간의 ‘심리’를 그림의 주제로 끌고 옵니다. 왜 신, 도덕과 상관없는 ‘사람의 감정’을 그리느냐고 당시 사람들은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아하지 않게 격렬한 감정의 한 순간을 표현했으니까요. 뭉크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정치범으로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실제 나치가 집권 하면서 뭉크의 그림을 퇴폐미술로 규정하고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심리를 중요시하는 미술을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다행히 뭉크는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 시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데 말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뭉크가 니체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알고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역사적인 시점의 그림이 바로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는 또 판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판화는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여러 점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특정한 소수만 즐기는 미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를 향유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에 온 뭉크의 ‘절규’는 판화 버전입니다. 니체의 초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삶, 심리, 감정 같은 표현이 왜 당연하지 않은지 알고 본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도 뭉크 선생님의 공이 크답니다.

SBS A&T 영상본부 영상취재팀 공진구

### | 경조사 소식 |

❖ 애도합니다

- 제작본부 예능국 배성우 차장 부친상(7월 28일)
- 경영지원팀 최춘식 사원 부인상(7월 26일)
- 기획실 광고관리팀 최윤석 사원 빙모상(8월 4일)